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수동구문 유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미 영

영어수동구문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es of English Passive Constructions

2014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미 영

영어수동구문 유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미 영

김미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자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 관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수동구문의 특징	5
1. 동사적 수동구문의 특징	8
2. 형용사적 수동구문의 특징	12
III. 수동구문의 유형	16
1. be + p.p.	16
2. get + p.p.	18
3. become + p.p.	21
4. grow + p.p.	22
5. stand + p.p.	23
6. feel + p.p.	24
7. remain + p.p.	25
8. appear / lie / seem / look / sit / rest + p.p.	25
9. have[has] / had been + p.p.	27
10. be + being + p.p.	28
11. 조동사가 사용된 수동구문	28
12. 명령문의 수동구문	30
13. 의문문의 수동구문	32
14. 간접 수동구문	35
15. 의사 수동구문	37

16. by 이외의 다른 전치사가 사용되는 구문	39
17. 의미상의 수동태	42
a. 중간태	42
b. 경험수동태	45
c. 내재 수동구문	47
18. 이중 수동구문	48
19. 부사 there에 유도되는 수동구문	49
IV. 결론	51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ypes of English Passive Constructions

Kim, Mi-young

Advisor : Prof. Lee, Namg-eun,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classify the types of passive construc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the passive voice is used when focusing on the person or thing affected by an action. And the passive voice is able to deliver more clearly the speaker's intention than the active voice in discourse. As it is frequently used in the discourse, many linguists have studied the passive voice. Even though the study of the passive voice is being performed from traditional grammar to transformational grammar in several aspects,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One of the problems i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passive voice is limited. Generally, the passive is referred to a grammatical construction. The object of an active sentence appears as the subject of a sentence with passive. The subject of a passive sentence typically denotes the recipient of the action rather than the performer. The usual form of the passive uses the auxiliary verb 'be' together with the past participle[p.p.] of the main verb. For example, in

school grammar, many educators put teaching typical form and the arrangement of words before explaining characteristics that the passive has and situations where it is used. Also there are many other forms besides the form 「be + p.p + by agent」. For example, some structures that take the form of 「be + pp」 don't have the meaning of passive. Other structures that don't take the form 「be + p.p.」, however, signify the meaning of the passive.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explaining the passive structure in the English form of the passive verb phrase. This leads to confusion about structures which do not correspond to the right form. Educators and learners therefore have difficulty teaching and learning the passive perfectly.

As mentioned earlier, there are various types of passive constructions that have their own features. Also, many linguists have mentioned that the meaning of the passiv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active in their studies. That is that the passive is not derived from the active. And each structure has a different deep structure. According to this point, the passive and the active don't have a structure that has a one-to-one corresponden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nalyze the passive by an independent type. Although, there are a lot of studies for this, the types of passive aren't classified perfectly in their studies.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passive by syntactic based on the findings of many linguists. And the types are organized into 19 different types.

Chapter I describes the aim of this study and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the passive. Chapter II describes the characters of the passive structure. Chapter III classifies and describes the types of the passive are classified by syntactic on the basis of many linguists. Chapter IV describes the summary of this study.

With this, the understanding of the passive constructions will be good for student by recognizing the various forms of the passive. Furthermore, to make it easier to reach practical use, the more efficient teaching methods should be suggested than some ways how the learner gets learned by rote.

I. 서론

영어에서 수동구문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능동 구문 보다 담화에서 다양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수동구문에 대한 연구가 전통문법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의 변형문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 및 다양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학교 문법에서는 수동구문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수동구문의 특성 등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 단순히 수동구문의 형태와 수동구문이 갖는 전형적인 형태와 어순에만 치중하고 있어, 그에 따르지 않는 구문에 관해서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은 수동구문을 지도하고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영어의 수동구문을 단순히 동사의 형태만으로 설명하려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수동구문은 「be + 과거분사(p.p.) + by 행위자(agent)」 이외에 여러 다른 형태들이 존재 하고 있다. 또한 「be + p.p.」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수동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와, 반대로 「be + p.p.」 형태를 취하지 않지만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의 수동구문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또한 그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동구문의 여러 가지 문법적 속성이나 의미, 화용론적 속성을 밝히는 것 보다 수동구문의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들을 중심으로 19가지로 정리하여, 영어 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동구문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수동구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영어에는 이른바 태(Voice)라는 문법 범주가 있어 능동태(active voice)는 동사의 한정형(finite form)으로 나타내고, 수동태(passive voice)는 수동태의 조동사인 be 동사와 과거분사(past participle)라는 비한정형(nonfinite form)으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태라는 것은 원래 타동사가 주어, 목적어를 상대로 해서 가지게 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의미상의 구별이라기보다 형태상의 구별이며 주어에 대한 동작의 방향(direction of the action)이 be동사와 과거분사의 구성으로 나타내어질 때 비로소 수동태라

고 한다(Jespersen 1924:168). Zandvoort(1957:53)는 수동태는 의미상 구별이 아니라 형태상의 구별로서 「be +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문장의 주어에 의해 행해진 동작을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보통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주어(S) + 타동사(V) + 목적어(O)」구문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듯이 동작의 방향이 이를 행하는 주체 보다 목적어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한다. 이는 다음 예문(1)을 보면 (1 a)의 목적어인 *her family portrait*에 초점을 두어 이를 주어자리에 위치시키고 이때 능동의 동사를 「be + 타동사의 과거분사」형태로 변형시키고 주어였던 *Jenny*를 by 행위자(agent) 형태로 취하면 (1 b)의 문장이 된다.

(1) a. Jenny painted a CD her family portrait.

b. Her family portrait *was painted* by Jenny.

(2) a. Julie gave *me* some exciting work.

b. *I* was given some exciting work by Julie.

c. *Some exciting work* was given to me by Julie.

(2)의 예문은 이중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능동문으로 (2 a)의 간접목적어(indirect object)를 주어로 한 수동 구문이 (2 b)이고, (2 a)의 직접목적어(direct object)를 수동구문의 주어로 한 것이 (2 c)이다. 원래는 직접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수 있었지만 최근 몇 세기에 걸쳐 간접목적어도 수동태의 주어로 쓰이게 되었다. Jespersen(1933:120-122)에 의하면 이는 사물보다 인간을 중요시 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Crum(1935:127)에 따르면 영어의 이중목적어 문장의 경우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수동구문을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영어표현력이 더욱 섬세하고 다양해지며 구문을 간소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Sweet(1953:112)는 주어와 목적어에 대하여 타동사가 가지게 되는 관계를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태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정동문법과 변형문법의 초기 이론인 표준이론(standard theory)에서는 수동구문은 능동문에서 변형과정을 통해 도출 되는 것으로 본다.

(3) Passive Transformation (optional)

S D : NP₁ - Aux - V - NP₂

1 - 2 - 3 - 4

S C : 4 - 2+be-en - 3 - by+1

능동문이 수동구문으로 변형되려면 능동문의 구조가 NP₁ - Aux - V - NP₂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처음 능동문에 사용된 목적어 NP(명사구)를 주어자리에 놓고 여기서 주어로 사용된 능동문의 주어인 NP는 수동구문의 by + NP로, Aux(조동사)에는 be를 부가(adjunction)시키고 V를 과거분사의 접미사인 -en을 부가시키는 규칙이다. 위에서 살펴본 초기의 변형문법이론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심층구조에서 일단 결정되면 변형은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는 Katz-Postal(1964:137)의 가설을 받아들였다. 즉 두 개의 표면구조와 동일한 기저구조에서 나온 경우 하나의 파생된 구조는 수의적 변형(optional transformation)이 적용되고 다른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서로 다르다면, 두 구조는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량사가 있는 문장은 종래의 분석과는 다르게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Jespersen, Onions, Poutsma, Zandvoort, etc.)에서 언급되고 있다.

(4) a. All the arrows *did not hit* the target.

b. The target *was not hit* by all the arrows.

(4)의 예문을 보면 (4 a)는 '모든 화살이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4 b)는 '그 과녁에 모든 화살이 다 맞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이 두 문장은 능동구문에서 수동구문으로 변형되었지만 두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다.

따라서 수동구문의 분석은 능동구문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 보다는 능동과 수동구문이 각기 다른 심층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을 일대일 대응구조로 분석하기 보다는 수동구문을 독자적 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한 분석들(이강정.2002, 백은옥.2000 등)이 있지만 완전하게 유형이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분류를 토대로 수동구문이 갖는 유형들을 통사적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1장 서론에서는 본고의 목적과 수동구문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수동구문을 동사적 수동구문과 형용사적 수동구문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며 3장에서는 수동구문의 유형을 여러 기준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내며, 수동구문과 영어 교육에서의 어려움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동구문을 이해하는데 더 쉽고 이를 활용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동구문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 기존의 기계적으로 수동구문을 외우도록 하는 학습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제시되길 바란다.

II. 수동구문의 특징

전통문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능동과 수동의 본질적인 관계규명에 중점을 두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능동문을 사용하는 대신 왜 수동구문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수동구문을 통사적으로 분류한 특징을 언급하기 전에 수동구문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Sweet(1891:113)는 수동은 타동사의 목적어를 문장의 문법주어로 삼음으로 써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라고 주장하였고, Poutsma(1914-29, II. ii :101)는 행위자를 문장의 끝에 언급함으로써 문장을 두드러지게 할 목적으로 수동문이 자주 쓰인다고 하였다.

Jespersen(1933:120-121)에 따르면 수동구문을 사용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능동의 주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쉽게 밝힐 수 없는 경우이다.

- (5) a. He *was killed* in the Boer war.
- b. The doctor *was speedily sent* for.
- c. The town *is well provided* with water.

(5 a)에서 전쟁 중 그가 죽었으므로 상황은 알 수 있으나 누가 죽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5 b)는 의사를 부르러 간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또 (5 c)에서처럼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는, 능동의 주어가 문맥상 뚜렷하여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이는 전후관계나 문맥을 통해 능동주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수동주어에 비중을 두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수동구문을 사용하게 되며, 행위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6)의 예문을 보자.

(6) a. He *was elected* Member of Parliament for Leeds.

b. English *is spoken* in U.S.A.

c. Sugar *is sold* by pound.

(6 a)는 의회의 회원으로 선출 된 것, (6 b)영어가 미국에서 쓰인다는 것, (6 c) 설탕이 파운드 단위로 판매되는 것은 행위자가 문맥상 뚜렷하여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6 a, b, c)는 모두 문맥상 행위자가 일반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능동의 주어 보다 능동의 목적어, 즉 수동의 주어 쪽에 관심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능동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동구문으로 표현함으로써 문두에 위치한 수동주어가 일차적인 초점을 받고 강조된다는 것이다.

(7) a. A car ran over his daughter.

b. His daughter *was ran over* by a car.

(8) a. Lightning struck the house.

b. The house *was struck* by the lightning.

(9) a. Those pyramids *were built* around 400 AD.

b. Too many books *have been written* about the second war.

(7 a), (8 a)의 능동문이 (7 b), (8 b)의 수동구문으로 변형된 것인데, (7 a)에서는 A car에 중점을 두고 볼 수 있지만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수동구문 (7 b)의 주어인 His daughter가 강조된 것이다. (8 a)는 Lightning이 주체이지만 수동구문 (8 b)에서 번개를 맞은 The house가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9 a, b)에서처럼 능동의 목적어가 화자나 청자에게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수동구문이 사용된다는 것이며, 행위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같은 주어를 사용할 때, 수동구문을 사용함으로써, 구문상의 간결을 꾀하고자 문장끼리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수동구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10) a. He became a well-known novelist, and we *elected* him chairman of the meeting.

b. He became a well-known novelist, and *elected* chairman of the meeting.

(10 a)는 연결된 두 문장이 모두 능동문으로 주어가 서로 다르다. 반면에 (10 b)의 문장은 능동구문에 수동구문이 연결된 것으로 주어를 동일하게 하여 문장의 연결이 용이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기능과는 달리 단순히 구문 형태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수동구문은 능동문으로부터 변형되는 규칙이 있지만 꼭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미묘하게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문맥에 따라 파악해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동구문이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수동구문은 그에 따르는 대응능동문이 존재하고 많은 전통 학자들이 전환주어와 전환목적어와 같은 분석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수동구문과 능동구문에 서로 대응하는 구문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문법학자들은 두 종류의 수동구문이 있다고 설명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수동구문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해결한다. Jespersen은 수동태를 존재수동과 생성수동으로 나누었고, Onions(1971:99)는 수동의 형태가 지속적, 습관적인 행동과 행동의 결과인 상태인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Crum(1931:443)은 이런 두 종류의 수동을 동작수동과 상태수동이라고 설명한다.

상태 수동태의 경우 수동태를 형성하고 있는 과거분사가 앞의 be동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가진 형용사적의미와 부합하여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이미 일어난 상태나 결과를 의미한다. 이것은 서술형용사(*delighted, interested, pleased, satisfied, ashamed, etc.*)구문과 혼동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이 *be*동사와 연결될 때 이것은 수동구문이라기 보다 서술 형용사구문이라고 한다, 상태수동태는 단순히 상태를 표현하기보다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적인 힘이 과거분사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로부터 어떤 동적인 것이 피 행위자로 이동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다. 동작을 강조하는 동작수동태인 경우 대체로 *be*보다 *get, become*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고 상태나 결과를 강조할 때 *be*를 많이 쓴다. 상태성과 동작성을 모호하게 나타내는 *be*와는 다르게 *get*이나 *become, grow, stand*는 움직임이나 동작의 개념이 확연하다(이영주, 2006:16, 18).

Wasow(1977)는 영어의 수동구문을 크게 형용사적인 속성을 지닌 수동(*adjectival passives*)과 동사적인 속성을 지닌 수동(*verbal passiv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수동구문이라 해도 구 성격이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같은 수동구문이라 해도 동작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동작보다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통사적 기준에 의해 동사적 수동구문과 형용사적 수동구문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동사적 수동구문의 특징

이은정(1996:12)에 따르면, 동사적 수동구문에 대한 대표적인 통사적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동구문은 명확한 대응 능동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사적 수동구문은 능동구문으로부터 변형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수동구문에서 *be*는 수동조동사로, *p.p.*는 본동사로 분석 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1) a. The vase *was broken* by Ed.

b. Ed broke the vase.

(12) a. This conclusion *was hardly justified* by results.

b. The results hardly justified this conclusion.

(11 a)의 수동구문은 (11 b)의 능동 구문과, (12 a)의 수동구문은 (12 b)의 능동구문과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둘째, *by-phrase*의 유무에 관한 것인데, 이는 대응 구문을 가진다는 특징과 연결 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13)은 두 가지 대응 능동문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데 아래 예문을 살펴보면 (13)의 문장은 (14 a. b)와 같이 각각의 대응하는 능동문을 가질 수 있다.

(13) Coal *has been replaced* by oil.

(14) a. Oil has replaced coal.

b. (People in many country) have replaced coal by oil.

(14 a)의 문장의 주어 *oil*에서 도출된 (13)의 *by oil*은 행위자로 분석되지만 (14 b)에 도출된 *by oil*은 도구적(instrumental)으로 분석된다.

(15) This difficulty can *be avoided* in several ways.

(15)예문은 행위자가 없는데 이러한 문장을 행위자가 없는 수동구문(agentless passive)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동구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의 주어를 알기 어렵다. 행위자 없는 수동구문은 단수동구문(short passives)라고도 하며 「by + 행위자(agent)」가 있는 장수동구문(long passives)과 구별된다.

행위자가 있는 수동구문, 즉 장수동구문보다 행위자가 없는 수동구문이 문어나 구어에서 더 흔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수동구문자체가 화자는 행위자를 주어자리로부터 덜 눈에 띄는 자리로 이동시켜주는데, 만약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행위자를 포함하지 않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첫째, 화자가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16)의 예문은 그의 차가 도난당한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행위자를 알 수가 없다.

(16) His car *was stolen* in Detroit.

둘째, 화자가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인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때이다. 다음 (17)의 예문은 데이터가 수집된 것 이외에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이고, (18)의 예문은 실수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일어난 것에만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행위자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이다.

(17) Data *were collected*.

(18) Rather than dwelling unnecessarily on the cause of this Fiasco, let's just say that mistakes *were made*.

셋째, 행위자에 대한 신원이 문맥으로부터 명백하게 가정될 때,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이다.

(19) a. Our grapes *are* usually *harvested* in late August.

b. Diagnostic tests *are used* to identify students' strengths and weaknesses.

c. It *is known* that supercooled moisture forms ice.

(19 a)에서 화자는 청자가 농장 노동자가 수확하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도록 한다. 비슷하게 (19 b)에서 작가는 독자가 빠진 행위자가 교사(teacher)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19 c)에서 행위자는 일반인들로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화자입장에서 행위자가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이미 행해진 행동에 더 흥미가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보고서나 실험에서 흔히 나타난다. (20)의 예문을 보자.

(20) The animals *were first given* a cue for an orientation, and a series of gratings *was presented*.

이 예문 (20)에서처럼 행위자가 없는 수동구문을 사용하는 다른 이유들은 독자들이 행위자가 조사자(researcher)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단수동구문은 다른 장르의 글 보다 학술논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학술 논문의 저자들이 보통 개인적인 것보다 일반화, 체계성, 그리고 결과들에 더 관련 되어있다. 반면에 장수동구문은 *by*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글쓴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거나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 경우 (21 a, b)의 예문과 같이 *by* 행위자를 사용한다.

(21) a. This picture *was painted* by Van Gogh.

b. This package *was dropped* off by a strange-looking women.

(21 a)의 예문을 보면 그림이 그려진 행위보다 *Van Gogh*에 의해 그려졌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21 b)의 예문에서 이 상자가 *a strange-looking women*에게 배달되어진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동사적 수동구문의 특징이 바로 동사적 수동구문의 접사화(affixation)인데 이는 능동 동사형이 과거분사형으로 되더라도 품사는 여전히 동

사라는 것이다.

- (22) a. Mary solved the problem.
b. The problem *was solved* (by Mary).

(22 a)를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22 b)의 문장이 된다. (22 b)의 수동조동사는 (22 a)의 규칙동사의 능동형에 수동형태소 *-ed/-en*을 결합함으로써 도출된 것이다. 이 접사화의 과정은 품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는 능동동사형에 *-ed/-en*의 형태소가 붙더라도 품사는 여전히 동사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사화과정은 다음 (23)처럼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II-2에서 다룰 형용사적 수동형과는 달리 통사부에서 일어난다(Jaeggli, 1986).

- (23) a. solve : [+ V : -N](= V)
 <agent, theme> →
b. solved : [+ V : -N](= V)
 <theme>

이처럼 동사적 수동구문은 그에 대응하는 수동구문이 존재한다는 것, *by-phrase*가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 능동문의 주어는 알 수 없다는 것, 능동구문의 동사가 수동문의 접사화 되어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품사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2. 형용사적 수동구문의 특징

형용사 수동구문은 그 형태에 있어서 동사적 수동(verbal passives)과 유사하

지만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형용사적 수동구문은 *not*의 의미를 지닌 부정 접두사(negative prefix)인 *un-*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접두사는 (24)처럼 주로 형용사에 붙는 형태소로서 동사에는 붙지 않는다.

- (24) a. unhappy, unkind, unsympathetic
b. * Humans *uninhabited* the island.
c. The island was *uninhabited* by humans.

둘째, 형용사적 수동은 명사들을 수식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대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관련된 것이다. (25)의 예문을 보면 *uninhabited*는 명사인 *island*를, *uninterrupted*는 *performance*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5) a. The *uninhabited* island
b. The *uninterrupted* performance.

셋째로, 형용사적 수동은 (26)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seem*이나 *remain*과 같이 대개 형용사들을 보어로 가지고 오는 동사들의 보어 기능을 한다.

- (26) a. Leonard seemed *interested* in linguistics.
b. The performance remained *uninterrupted*.

넷째로, 수동구문의 과거분사가 *very*, *quite*, *rather*, *more*등의 강화사(intensifier)에 의해 수식받으면 형용사적 수동구문으로 볼 수 있다.¹⁾

1) 형용사적인 수동구문에 대한 의미적인 기준으로서 상태적이라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분사적 형용사는 상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Quirk, 1985:170).

(27) a. Leonard was *very* interested in linguistics.

b. We are *rather* encouraged to go on with the project.

위 네 가지 특성들은 (26 b), (27 b)에 있는 동사의 수동형인 *uninterrupted*, *encouraged*는 형용사적이라는 성질을 가리킨다. 기저동사(base verb)로 부터 형용사적 수동으로의 생성과정은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이은정.1996:15-16).

(28) a. inhabit : [+ V - N](=V) →

b. inhabited : [+ V + N](=A)

(28)의 규칙은 접사가 동사에 접사화되면 생성된 어휘의 품사를 변화시켜 형용사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동사적 수동구문의 접사화(23)에서 동사의 어휘의 품사가 변화되지 않는 특성과는 반대이다. 위의 통사적 특징 이외에도 형용사적 수동구문은 대응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표현하는 *by-phrase*를 추가하는 것이 선택적이다.

(29) a. The building *is* already *demolished*.

b. *(someone) already demolishes the building.

c. (someone) has already demolished the building.

위 예문(29)은 전통적으로 상태 수동구문으로 알려져 왔는데,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29 a)의 수동구문을 능동구문으로 전환할 때 흔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수동구문으로 전환했을 때의 문장은 (29 b)가 아니라 (29 c)여야 한다. 이는 *is demolished*의 결과로 생기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행동자체를 나타내는 것 보다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사적 수동구문은 동적이고 형용사적 수동구문은 상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형용사적 수동구문의 동사구 형태는 보통 「V + p.p.」 인데 여기서 V는

동사적 수동구문과는 다르게 계사(copular)로 분석되고, *p.p.*는 동사의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로 분석된다²⁾.

형용사적 수동구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not*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접두사 *un-*을 취할 수 있고 수동화된 과거분사는 명사를 수식하여 나타낼 수 있다. 형용사를 보어로 가지고 오는 동사들의 보어로 기능할 수 있으며 과거분사는 강화사에 의해 수식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동접사화가 이루어지면 이는 품사가 변하여 형용사의 성질을 갖게 된다. 또한 수동구문에 대응하는 능동구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by-phrase*를 추가하는 것이 선택적이다.

2) Quirk(1985:1171.72)는 연계동사에 대해 의미는 없으나 보어와 주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동사라고 하며 이러한 연계동사에 속하는 동사들을 두 형태로 나눠 상대적 연계동사(current copular)와 사건의 결과나 동사에 기술된 과정을 나타내는 결과적 연계사(resulting copular)분류하였다.

* current copular : be, feel, look 등

* resulting copular : get, become, grow 등

III. 수동구문의 유형

문갑동(1991)은 수동구문의 유형을 수동개념을 가지고 동사를 포함하는 문자들의 모든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동작수동(actional passive)과 상태수동(stative Passive)은 물론 구조주의 문법에서 말하는 개념상의 수동(notional passive)과 형식상의 수동(formal passive)을 모두 다 포함시켰다. 또한 변형 문법에서 말하는 심층구조와는 관계없이, 어떤 변형과정(transformational process)을 거쳤던 간에, 표층구조의 문장이 수동구문의 형태를 가졌거나, 수동의 의미를 지녔을 경우, 문장의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형태의 문장을 수동으로 간주 하고 그 동사의 유형을 수동구문의 유형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갖거나 수동의 형태를 갖는 것은 모두 수동구문으로 보고 이를 19가지로 정리하였다.

1. be + p.p.

이 유형은 수동구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으로서 조동사인 be 동사와 과거분사(past participle)의 결합으로 능동과는 의미상의 구별보다 형태상의 구별이다. 상황에 따라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작을 나타내는 수동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다.

- (30) a. The vase *was broken* by Tom.
b. The house *is painted* every year.
c. These birds *are seldom seen* in England.
d. The door *was shut* at six.
e. Here in 1823, the Indians *were surrounded* by the English.

위 예문에서 (30)에서 *break*라는 동작이 *Tom*에 의해 행해졌다는 동작을 나타내며 (30 b)도 *paint*라는 동작이 매년 행해지는 동작을 표시한다. (30 c) 역시 새들이 *see*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30 d)에서는 *shut*된 상태를 나타내고 (30 e)도 *surround*된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be+과거분사」로 구성된 이 예문(31)은 수동구문과 닮았다. 하지만 이는 능동의 대응관계를 가지지 않고 행위자를 허용하지도 않는다.

(31) a. My report is finished now.

b. I have finished my report now.

(31 a)의 문장은 의미적으로 능동문에 해당하며 이는 (31 b)와 의미가 같다. 이 예문에서 *finished*는 상태(state)를 나타낸다. 이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시제의 수동구문은 결과의 현재완료 능동태와 의미가 같다. 일부 수동구문은 특히 과거시제에서 종의적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 예문을 보자.

(32) a. The job *was finished* at two o'clock.

b. The job *was finished* at two o'clock (by Jane, who had just arrived).

c. The job *was (being) finished* at two o'clock (just as the clock was striking).

위의 예문(32 a)는 상태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의사 수동구문이다. 만약 의미가 '내가 도착한 두시에 그 일이 끝나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구문은 상태중심 수동구문이다. 하지만 (32 b)와 (32 c)를 살펴보면 행위자가 공급이 되거나 동사의 일부가 진행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동작중심 수동구문이다.

2. get + p.p.

「get + p.p.」는 크게 격식을 따르지 않는 표현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위자 없는 수동구문(agentless passives)에 사용된다. 또한 행위자보다 주어를 강조하며 사건의 결과로 주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두며, 이는 수동의 형태를 지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행위자(동작주)를 따를 수 없으므로 의사 수동구문(pseudo-passive)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경우에 동작주보다 주어에 더 많은 의미를 둔다. 의사 수동구문에 대해서는 다음 3.15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33) a. We are *getting bogged down* in all sorts of problems.

b. I have to *get dressed* before 8 o'clock.

c. I don't want to *get mixed up with* the police again.

(33 a)는 상태의 변화, (33 b, c)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위 예문과 같은 동작중심의 수동구문들의 통사 구조적 특징은 *by* + 행위자가 거의 다 생략된다는 점이다(Leech & Svartvik 1975:259).

「get + p.p.」는 동작의 결과나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며 동작동사만으로 사용되며 인지를 묘사하는 상태동사(*comprehend, know, understand, etc.*)와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다음 (34)의 예문에서 *fire*는 동작동사로 *be*-수동구문과 *get*-수동구문에 모두 사용되었지만 (35)의 예문에서 *know*는 상태동사로 *be*-수동구문에는 사용되지만 *get*-수동구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34) a. Jerry *got fired* because he was always late for work.

b. Jerry *was fired* because he was always late for work.

- (35) a. Nothing *is known* about the thief.
 b. *Nothing *gets known* about the thief.

「get + p.p.」는 동작의 결과나, 상태의 변화에 관련된 화자의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be + p.p.」의 동사구가 상태중심의 수동인데 반해 「get + p.p.」는 동작중심의 수동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6) a. Our house *gets painted* every year.
 b. John tried to cheat, but he *got caught* at it.
 c. Their car *got stolen* in front of their house last night.

(36 a)는 매년 집이 칠해지는 상태의 변화, (36 b, c)는 잡히게 되거나 도난당하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37 a)는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와 누군가에 의해 창문이 깨지는 동작을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get*을 사용한 (37 b)는 동작만을 나타낸다.

- (37) a. The window *was broken*.
 b. The window *got broken*.

be-수동구문에서처럼 *get*-수동구문으로 보이는 문장은 실제 능동구문이다. 비슷한 주된 형태에서 *get*은 *become*을 의미하고 뒤에 분사 형용사가 따라온다.

- (38) His explanation is *getting complicated*.

예문(38)은 과거분사 *complicated*가 있는 문장에서 *get*-수동구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는 형용사이다. 여기서 동사 *get*은 *becoming*이나 *coming*으로 바꿀 수 있고 이는 상태나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서 (38)의 예문은 (39)로 바꾸어 쓸 수 있

다.

(39) His explanation is *becoming complicated*.

하지만 get-수동구문은 (40)의 예문에서처럼 대응구문을 갖지 않는 사건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40 d)처럼 주어에게 혜택을 주는 행동을 표현하기도 한다.

- (40) a. Tom *got examined* by specialist.
b. The mail *gets delivered* everyday.
c. My letter *got published* in the Sunday Times.
d. Jane *got promoted* last week.

또 get-수동구문은 be-수동구문에 비해 더 즉각적이거나 계획되지 않은 활동들을 말할 때 쓰인다.

- (41) a. I *got hit* by a car last night.
b. I *was hit* by a car 5 years ago.

(41)의 예문을 보면 (41 a)는 어제 밤에 일어난 일이고 (41 b)는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어떠한 일이 짧은 시간간격 전에 일어났다면 주로 *get*을 사용한다. *be*를 사용해도 맞는 말이지만, *get*을 사용하면 좀 더 나아보이고 활동적이어 보인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공격(*get hit*), 방해(*get trapped*), 이동(*get snatched*),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get punished*)같은 의미 범주의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3. become + p.p.

Crume은 *become*-수동구문의 역사는 짧지만 뜻이 분명하여 사실 전개에 유리해서 흔히 쓰이는 수동구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get*과 같이 동작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진입의 힘(ingressive force)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Crume. 1935:219). 또한 순수한 형용사적인 성질을 갖는 과거분사와 사용될 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마지막 상태의 시작이라 설명한다(Crume. 1931:442-447). 이는 be나 get보다 어떤 동작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고 (42)의 예문들은 상태의 시작을 보여주는 예문들이다.

- (42) a. The two *become* well *acquainted*.
b. I am *becoming* *tired*.
c. She *became* *engaged*.
d. This newspaper has already *become* widely *read* in this community.
e. She *become* *seized* with a profound melancholy.

(42 a)에서 *acquainted*는 (무엇인가)숙지가 잘 되기 시작한 상태, (42 b)에서 *tired*는 피곤한 상태가 시작 된 것, (42 c)에서 *engaged*는 그녀가 약혼된 상태를 말한다. (42 d)에서 *read*는 신문이 널리 읽혀지기 시작한 상태이고, (42 e)는 *seize*는 그녀가 우울한 상태에 빠지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Zandvoort(1957:57)는 *get*과 *become*의 차이를 완료(perfective)와 지속(durative)의 차이라고 했다.

- (43) a. The whole world is rapidly *becoming* *Americanized*.
b. They *got* *married* in 1995.
c. *They *become* *married* in 1995.

(43 a)예문을 보면 *become*은 어떤 동작의 진행과정을 나타내어 지속의 성질을 표현하는데 반해 (43 b)의 예문의 *get*은 이미 완료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become*은 '되다'라는 의미를 단어 자체에 포함하고 있고 지속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43 c)와 같이 이미 완료된 동작의 의미인 *married*와 함께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Poutsma(1926:100)은 *get*-수동구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get* + p.p.」는 「*be* + p.p.」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동의 뜻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become* + p.p.」는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데 다소 약한 면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get*은 과거분사와 결합을 할 때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거의 완전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 조동사로서 적절한 감이 없다는 것이다. Zandvoort도 「*become* + p.p.」에서 *become*이 본래 가지고 있는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뒤에 오는 *p.p.*가 상태나 조건을 표현하는 보충어인 의미론적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Zandvoort, 1957:57).

4. *grow* + p.p.

Jespersen(1954:111)은 「*grow* + p.p.」가 *becoming*또는 *become to be*의 뜻을 갖게 된 것은 1940년경이며 이때부터 *grow*가 수동 조동사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Jespersen은 「*grow* + p.p.」는 「*become* + p.p.」와 거의 같은 의미이거나 *grow accustomed*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최은정, 2009:31). 아래의 (44)의 예문에서처럼 *be*보다는 *grow*를 조동사로 사용함으로써 행동이 점점 이루어지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다.

- (44) a. He *grew tired*.
 b. The class *grew excited*.
 c. Her curiosity *grew aroused*.

5. stand + p.p.

「stand + p.p.」는 전통주의 문법에서나 구조주의 문법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으며, 변형문법에서나 격 문법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보면 아마도 이것을 수동구문으로 간주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Crum(1931:447)은 수동 조동사 *stand*는 바로 앞에 일어난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로 생긴 상태를 나타내고 또는 준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한다(최은정.2009:32).

- (45) a. He took the key and opened the lid, when the cakes and wine
stood revealed in all their damning profusion.
- b. I *stood prepared* to repel any attack.
- c. The meeting *stands adjourned* to five o'clock.
- d. I *stand corrected*.
- e. We *stand committed* to this action.

위의 예문(45 a)는 뚜껑을 연 행동의 결과로 케이크와 와인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45 b)는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준비성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45 c)는 회의가 5시까지 중단되었다는 바로 앞에 일어난 결정을 보여주고, (45 d)는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앞의 행동의 결과로 생긴 상태, (45 e)는 이 동작에 열성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보여주는 나타낸 또 다른 예문들이다.

Jespersen(1954:111)은 (46)에 열거한 이 수동태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쓰인다고 말하고 있다.

- (46) a. He *stands accused* of murder.
- b. She *stood convicted* of robbery.
- c. He *stands condemned* in the court.
- d. We may easily *stand excused*.

(46 a)는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다, (46 b, c)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46 d)는 쉽게 면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수동구문도 *get*-수동과 같이 행위주가 없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feel* + p.p.

이 수동구문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stand* + p.p.」 수동구문과 마찬가지로 문법학자들이 수동구문으로 별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의미상 수동구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stand*와 마찬가지로 *be*와 대치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수동구문은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의 수동구문과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거분사는 형용사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최은정.2009:33).

- (47) a. I *feel inclined* to go abroad.
b. They *felt moved* at his impressive speech.
c. I had never *felt discouraged* at such a scene.
d. I *feel indebted* to you for your kindness.
e. I had never *felt discouraged* at such a scene.

위 예문들(47)에서 알 수 있듯, 행동의 움직임 보다는 뒤에 나오는 과거분사의 상태를 그대로 '느낀다'는 의미로 *feel*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긴 했으나, *feel*은 모두 *be*와 대치될 수 있으며, 정적인 뜻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상태수동태로 표현하고, 그 중에서도 형용사 구문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능동의 대응구문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7. remain + p.p.

「remain + p.p.」도 수동구문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데, *remain*의 뜻이 '남다, 유지하다'의 의미로 *be*의 뜻과 유사하다고 보며, 이것을 수동형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수동은 특히 상태(state)의 지속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stand + p.p.」 수동구문이나 「feel + p.p.」 수동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는 형용사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문갑동, 1991:30). 다음 예문을 보자.

- (48) a. The mystery *remains unsolved*.
- b. In every moment toward freedom some of the oppressed prefer to *remain oppressed*.
- c. The natural beauty of the country *remains unchanged*.
- d. He *remains dissatisfied*.
- e. The matter who will go there *remains unsettled* until now.

(48 a)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고, (48 b)는 억압이 유지되는 상태, (48 c)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 (48 d)는 만족스럽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 (48 e)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8. appear / lie / seem / look / sit / rest + p.p.

*appear*도 *be*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49)의 예문에 사용된 「appear + p.p.」도 수동구문으로 취급될 수 있다(김효선, 2010:8). 다음 예문 (49)을 보면, (49 a)는 마을이 사막화 된 상태, (49 b)는 그들이 사라진 상태를 나타내며 동작의 의미보다 상태의 의미에 중점을 둔 것이다.

- (49) a. The village *appeared* quite *deserted*.
 b. They *appeared* *disappointed*.

다음 (50)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lie*도 *p.p.*와 결합하여 수동구문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lie*의 본래 의미가 더해지면서 상태에 중점을 두는 상태 구문 강조 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생략이 된다.

- (50) a. Many pieces of furniture *lay scattered* about in the room.
 b. They *lie buried* in the snow.
 c. The robbers *lie hidden* in the woods.
 d. The fallen leaves *lie scattered* on the ground.

지금까지 살펴 본 수동구문의 유형들 이외에도 「*seem / look / sit / rest + p.p.*」 등도 수동구문 유형의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빈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51)의 예문에서와 같이 동사 자체의 뜻 보다 과거 분사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51) a. He *seems satisfied* with the result.
 b. The village *looked* quite *deserted*.
 c. He *sat satisfied* with the news.
 d. The old man *sat surrounded* by strange people.
 e. You may *rest assured* that everything possibly will be done.
 f. He *rest satisfied*.
 g. She can *rest assured* that he will come by nine.

이처럼 *appear, lie, seem, look, sit, rest*와 *p.p.*가 함께 사용된 수동구문은 동작을 강조하는 것보다 상태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능동의 대응

구문을 구성하는 것이 어색하다.

여기까지 수동구문의 여러 가지 유형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 요약하면 모든 유형의 수동구문의 일반적인 개념은 유사하지만, 결론적으로 수동 조동사의 어휘가 다르므로 그 어휘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는 각각의 의미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have[has] / had been + p.p.

완료시제의 수동구문은 완료시제 형태인 「have + 과거분사(p.p.)」에 수동구문의 기본형태인 「be + p.p.」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동과 완료용법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형태는 현재완료 「have/has + been p.p.」, 과거완료 「had + been p.p.」가 있고 이는 *have*의 시제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52)의 예문을 보면 그의 형태와 의미를 알 수 있다.

- (52) a. The game *have been created* by the young man.
b. The information from the lawyer *has been used* by politicians.
c. Her family portrait *has been painted* by a famous artist.
d. She *had been dressed* for more than an hour.
e. The moon *had been seen* in the backyard.
f. Cheating *has never been accepted* by the school.

(52 a)에서는 게임이 젊은 남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52 b)는 변호사로부터의 정보가 정치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 (52 c)는 그녀 가족의 초상화가 유명한 화가에 의해 그려진다는 것, (52 d)는 한 시간 이상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52 e)는 달이 보여 지고 있었고 (52 f)에서는 부정행위가 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두 동작이 행해진 것을 완료용법과 연결시켰다.

10. be + being + p.p.

진행형의 수동구문은 '~하는 중에 있다'라는 의미로, 진행시제 형태인 「be + 현재분사(ing)」에 「be + 과거분사(p.p.)」를 결합시킨 형태로 「be + being + p.p.」의 형태를 갖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3) a. A model of the house *is being made* by my friend.
b. The air and water *are being polluted*.
c. A new business *is being developed* by Mr. Jones.
d. Used books *were being sold* on the street by Paul.
e. A lot of fish *were being caught* in the lake by James.
f. The car *is being repaired* in the garage by dad.
g. The wall of the street *was being painted* by the kids.

(53 a)는 집의 모형이 친구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 (53 b)는 공기와 물이 오염되어지고 있는 중, (53 c)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Jones에 의해 개발되어지고 있는 중, (53 d)는 중고 책이 길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중, (53 e) 많은 물고기들이 호수에서 포획되어지고 있는 중, (53 f) 자동차가 차고에서 수리되어지고 있고, (53 g)은 거리의 벽이 페인트 칠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진행형의 수동구문은 수동의 동작이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것이다.

11. 조동사가 사용된 수동구문

수동구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완료 수동구문, 진행형 수동구문이 존재하며, 미래시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를 수동구문과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조동사의 특성에 따라 조동사는 *be*앞에 위치하여 *be*를 원형

으로 가지고 오며 형태는 「조동사 + be + p.p.」이다.

- (54) a. My proposal may *be accepted* by the manager.
b. An E-mail must *be sent* in advance by Brian.
c. They might *be attracted* by her natural beauty.
d. These flowers can *be planted* next to the spring.
e. The deadline for reports should not *be forgotten*.

(54 a)에서 *may*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수동형인 *be accepted*를 결합시킨 것으로 조동사와 수동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54 b)는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be sent*, (54 c)는 추측의 *might*와 *be attracted*, (54 d)는 가능의 *can*과 *be planted*, (54 e)는 충고의 *should*와 *be forgotten*의 결합이다. 이들 모두 조동사와 수동구문의 결합으로, 조동사가 가지는 각자의 의미를 가지는 수동구문이다.

하지만 조동사를 사용한 수동구문은 능동의 대응구문과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임만석.1992:31). 다음 예문들(55), (56), (57), (58), (59)는 조동사가 사용된 각각의 능동구문(a)를 수동구문(b)로 전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 (55) a. You can make the telephone call now.
b. The telephone call *can be made* now.

(56) a. The mechanic could not repair the car.
b. The car *could not be repaired*.

능동구문인 (55 a)의 *can*은 허가(permiss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수동구문으로 전환된 (55 b)의 *can*은 가능(possibility)을 나타내고 있다. 또 (56 a)의 *could*는 능력(ability)을 나타냈으나, (56 b)의 *could*는 가능(possibility)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예문을 보자.

(57) a. Will you wash my car?

b. *Will my car be washed?*

(58) a. You may ask me any questions.

b. I *may be asked* any questions.

(59) a. You must have finished the job before 5 o'clock.

b. The job *must have been finished* before 5 o'clock.

(57 a)의 *will*은 요청(request)의 의미를 가지지만, (57 b)의 *will*은 문의(inquiry)의 의미가 된다. (58 a)의 *may*는 허가(permission)의 의미를 갖지만, (58 b)의 *may*는 불확실한 추측(uncertainty)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59 a)의 *must*는 강요(compulsion)의 의미지만, (59 b)의 *must*는 논리적 필연성(logical necessity)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조동사가 사용된 수동구문은 조동사가 가지는 의미가 변형되면서 대응하는 능동구문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12. 명령문의 수동구문

명령문을 수동구문으로 나타낼 때에는 독특한 형태를 갖는데 먼저 긍정의 명령 수동구문은 「Let + 목적어 + be + 과거분사」의 형태를 가진다. 아래와 같이 (60 a, b)의 긍정 명령문은 능동 구문에서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61 a, b)의 예문이 된다.

(60) a. Do it at once.

b. Keep my advice in mind.

- (61) a. *Let it be done* at once.
b. *Let my advice be kept* in mind.

하지만 (60)의 명령문이 (61)에서처럼 수동화되면 의미가 같지 않다. (60)의 명령문은 직접명령문으로 상태에게 명령하거나 충고, 금지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61)의 명령문은 간접명령문의 형태로 권유나 허락의 의미로, 두 구문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다.

긍정명령문의 수동구문이 있다면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명령문의 수동구문도 존재하는데 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Don't [Never] let + 목적어 + be + 과거분사」와 「Let + 목적어 + not + be + 과거분사」로 나타낸다.

- (62) a. Don't forget my name.
b. *Don't let my name be forgotten.*
c. *Let my name not be forgotten.*

- (63) a. Don't open the door.
b. *Don't let the door be opened.*
c. *Let the door not be opened.*

(62 a)의 능동구문은 (62 b) 또는 (62 c)의 수동구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3 a)의 능동구문도 (63 b) 또는 (63 c)의 수동구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명령문도 서로 대응하는 구문의 의미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63)의 예문을 보면 (63 a)는 문을 열지 말라는 동작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63 b, c)는 문이 열린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는 상태 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부정명령문이 두 가지 수동구문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 (64) a. Don't overprotect your children.
 b. *Don't let your children be overprotected.*
 c. *Let your children not be overprotected.*

(64 a)를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64 b, c)가 된다. (64 b)처럼 *Let* 앞에 *Don't*를 가지고 온 것은 *Let*을 일반동사로 보고 *Let*의 부정을 강조한 것으로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64 c)처럼 *be*앞에 *Not*을 가지고 온 것은 *Let*을 사역동사로 보고 *be*를 원형부정사로 여겨 *be overprotected*의 앞에 *not*을 가지고 와서 *be overprotected*의 부정을 강조한 것이다.

13. 의문문의 수동구문

의문문을 수동구문으로 나타낼 때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일반의문문의 수동태이고, 이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는 두 가지 형태를 갖게 된다. 또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이다.

먼저 조동사가 사용되지 않는 일반 의문문의 수동태의 형태를 살펴보면 「Be동사 + 주어 + 과거분사 ~?」이다. 먼저 예문을 보자.

- (65) a. Did he write that book?
 b. *Was that book written by him?*

- (66) a. Did he make the cake ?
 b. *Was the cake made by him?*

(65), (66)은 일반 의문문의 수동구문으로 (65 a), (66 a)의 문장이 수동구문으로 전환되면 각각의 (65 b), (66 b)문장이 된다. (67)은 수동구문으로 된 예문들

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 (67) a. *Was he invited to Mary 's birthday party?*
b. *Was she killed?*
c. *Is English spoken in this country?*
d. *Is this table made of wood?*

(67)의 예문들을 보면 행위자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거나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능동구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수동구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다음(68)의 예문은 조동사가 사용된 일반 의문문으로 형태는 「조동사+주어+be 동사+과거분사 ~?」 이고, 조동사의 특성상 의문문으로 전환되면 주어와 도치되어 조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간다.

- (68) *Can it be done by tomorrow morning?*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사+be동사+주어+과거분사~?」이며, 의문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는 「by+의문사(목적격)+be동사+주어+과거분사~?」이다. (69 a)와 (70 a)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수동구문으로 전환되면 각각의 (69 b)와 (70 b)가 된다.

- (69) a. *When did he build his house?*
b. *When was his house built?*

- (70) a. *What do they call this in English?*
b. *What is this called in English?*

의문사가 사용된 문장은 의문사가 가지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69 b)와 (70 b)의 예문에서처럼 행위자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으며, 능동구문보다 수동구문으로 나타낼 때 문장의 의미전달이 더 분명하게 이뤄진다.

다음 예문(71)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구문 예문들이다.

- (71) a. When *was* the tower *destroyed*?
- b. What can *be done* for the children?
- c. Which *was chosen*?
- d. What *was made* by them?
- e. Why *was he invited*?

(71 a)은 누가 언제 타워를 파괴했는지 보다 타워가 언제 파괴된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능동구문으로 전환하면 의미 전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71 b)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71 c) 무엇이 선택된 것인지, (71 d) 그들에 의해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71 e)그가 왜 초대되었는지 등, 수동의 의미와 의문사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고 나타낸 것이다.

의문사가 주어로 사용된 의문문의 수동구문을 살펴보자.

- (72) a. Who broke this window?
 - b. *By whom was* this window *broken*?
-
- (73) a. Who broke the vase?
 - b. *By whom was* the vase *broken*?

각문장의 (72 a), (73 a)가 수동구문으로 전환되면 (72 b), (73 b)의 문장이 된다. 이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장으로 의문사는 *by*와 결합하여 문장 앞에 위치하게 된다.

14. 간접 수동구문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는 현대 영어에서 두 가지 수동구문이 가능한데, 보통은 직접목적어가 수동구문의 주어가 되지만, 간접목적어 또한 수동구문의 주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를 간접 수동구문이라 한다. 아래의 예문(74 a, b)를 각각 수동구문으로 바꾸면 아래 (75 a, b)와 같이 전환할 수 있다.

(74) a. The old woman gave *a piece of candy* to the little girl.

b. The old woman gave *the little girl* a piece of candy.

(75) a. *A piece of candy* was given to the little girl by the old woman.

b. *The little girl* was given a piece of candy by the old woman.

(75 a)는 (74 a)의 직접목적어 *a piece of candy*를 수동구문의 주어로 한 직접 수동구문이고, (75 b)는 (74 a)의 간접목적어인 *the little girl*을 수동구문의 주어로 한 간접 수동구문이다. 이는 직접 목적어 뿐만 아니라 간접목적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Jespersen(1933:120-122)에 의하면 사물보다 인간을 중요시 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Crum(1935:127)은 두 가지 종류의 수동구문을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영어표현력이 더욱 섬세하고 다양해지며 구문을 간소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76) a. Sandy handed *Bert* the note.

b. *Bert* was handed the note (by Sandy).

(77) a. Sandy handed *the note* to Bert.

b. *The note* was handed to Bert (by Sandy).

(김혜란, 2006:17)

- (78) a. I gave *John* a book.
b. *John* was given a book (by me).

- (79) a. I gave *a book* to John.
b. *A book* was given to John (by me).

위 예문 (76), (77), (78), (79)에서 능동구문인 (a)를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각 (b)의 예문으로 나타난다. (76 b, 78 b)는 간접목적어를 수동구문의 주어로 한 간접 수동구문이고, (77 b, 79 b)는 직접목적어를 수동구문의 주어로 한 직접 수동구문이다.

간접수동구문의 생성과 발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80) a. Investigators thoroughly investigated *the accident*.
b. *The accident* was thoroughly investigated.

- (81) a. John watched *Bill*.
b. *Bill* was watched by John.

(80 a)와 (81 a)의 능동구문을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각각 (80 b)와 (81 b)가 되는데, (80)에서는 사람보다는 사건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수동표현이 능동표현보다 의사전달에 있어서 더 적절하다. 그러나 예문(81)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비록 똑같은 어휘가 쓰이고, 의미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라도 능동문이 더 직선적이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반면 수동구문은 표현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능동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의 관점전환에 따라 능동문이나 수동구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강양호, 2007:43).

15. 의사 수동구문

의사 수동구문(Pseudo Passives)은 「주어 + 자동사 + 전치사+ 목적어」의 구문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 보충어가 수동구문의 주어가 된 문장을 나타낸다. 이 때 「동사 + 전치사」의 어순에서 동사는 수동형이 되고 전치사가 좌초를 허용된다. 이는 전치사적동사의 수동구문(prepositional passives)이라고도 한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면 (82 a, b)는 능동구문인데 이를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각각 (83 a, b)의 예문이 된다.

(82) a. Someone has slept in my bed.

b. Everybody laughed at him.

(83) a. My bed has been slept in (by someone).

b. He was laughed at by everybody.

(83 a)와 (83 b)를 보면 전치사 뒤에 명사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84)의 예문들 또한 의사수동구문의 또 다른 예문들로 각각의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수동구문의 주어가 되면서 전치사좌초를 허용한 경우이다

(84) a. Tom was spoken *to*.

b. John was taken advantage *of*.

c. She was taken care *of*.

d. Nothing was agreed *on* by the committee.

e. He must be talked *to* by someone.

f. Harry was cared *for*.

다음 예문은 (85 a, b)의 능동구문이 각각 (86 a, b)의 수동구문으로 전환된 문

장이다.

(85) a. For many years we *relied upon* the seat belt for safety in automobiles.

b. One or more than one member of the household *slept under* the net.

(86) a. For many years the seat belt *was relied upon* for safety in automobiles.

b. The net *was slept under* by one or more than one member of the household.

이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 수동구문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실현된다. 이들 두 수동태 문장(85 a, b)는 자신의 주어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전치사구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즉, (85 a)에서 전치사구 *upon the seat belt*가 동사 *rely*의 보충어(complement)인 반면, (85 b)의 경우 전치사구 *under the net*이 부가어(adjunct)의 기능을 한다(이남근, 2009:21-22).

다음 (87 a)는 구동사, (87 b)는 전치사 수반 동사, (87 c)는 동사와 부가어 전치사구가 결합된 각각의 예이다.

(87) a. The light was turned out ____.

b. This question will be dealt with ____ later in the book.

c. This lake should not be fished in ____.

위 예문(87 a)에서 *turned out*의 *out*은 전치사라기보다 일종의 부사적 소사(adverbial particle)이고, (87 b)의 *deal with*에서 *with*는 *deal*과 결합하여 하나

의 동사처럼 인식되는 전치사이다. 또한 (87 c)의 *fished in*에서 *in*은 동사인 *fish*와의 관련성보다는 뒤에 오는 *this lake*와 함께 하나의 전치사 구를 형성하였던 요소로서 이런 경우 보기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보지만 통사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김선웅, 2009:451),(Takami, 1992).

16. by 이외의 다른 전치사가 사용되는 구문

수동구문은 일반적으로 「by + 행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전치사가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형용사 구문이나 지각동사 *seem*이나 *look*뒤에 과거분사형의 형용사가 쓰인 경우에 대부분 *by*이외의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사수동구문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by*이외의 다른 전치사를 쓰는 이유는 전치사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a. at, to, on

다음 (88)예문들에 사용된 *at*, *on*, *to*와 같은 전치사들은 목표지향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치사들이 수동구문에서 *by*대신 사용되었을 때는 행위자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행동이나 상태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 (88) a. He was surprised *at* her conduct.
b. He seemed surprised *at* the strange sight.
c. She is married *to* a fire fighter.
d. My name is known *to* everywhere.
d. The town is situated *on* the hill.

b. with, as, from, off

(89)의 *with*는 주로 도구, 수단을 표시하기 위해 쓰이며 (90)의 *with*는 만족, 불만, 곤란 등을 나타낸다.

- (89) a. the room was filled *with* toys.
b. It was killed *with* a hammer.

- (90) a. The student were bored *with* eating the same food.
b. I am disappointed *with* your poor service.
c. The queen was pleased *with* her magic mirror.
d. I am satisfied *with* his short answer.

(91)의 *as*는 자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92)의 *from*과 *off*는 근원지향 전치사로 (92 a)의 *from*은 변화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92 b)의 *off*는 없어지거나, 분리되는 등의 의미로 *by*대신 사용된다.

- (91) a. She is known *as* a famous actor.
b. He is known *as* a famous in Korea.

- (92) a. Glass is made *from* sand.
b. The cup was dropped *off* the table.

c. of, in

(93)의 *of*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동사-*beloved, scorned, admired* 등-의 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 *by*와 *of*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

- (93) a. He was beloved *of* all.

- b. She will be hated *of* all man.
- b. I am convinced *of* her honesty.

(94)의 예문에서는 *in*이 사용되었는데, 이 예문들에는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다. (94 a, b)는 장소의 의미에 준하는 명사를 동반하고 있으며, (94 c)는 흥미, 실망, 관심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94) a. Internal contradiction can also be seen *in* the following example.

- b. This matter is further discussed *in* chapter 4.
- c.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book.

d. at, about, into

(95)의 예문에서 *at*은 주로 감정의 대상을 수반하며 수동태 뒤에 와서 희비, 경악, 분노 등을 나타낸다.

- (95) a. I was enraged *at* the result.
- b. Tom was astonished *at* your behavior.
 - c. He is rejoiced *at* your success.

(96)의 *about*은 걱정, 흥분, (97)의 *into*는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96) a. He is worried *about* his health.
- b. They are not concerned *about* it.

(97) a. It was first introduced *into* philosophy by Mr. Charles Pierce
in 1878.

b. A proper name is turned *into* a common noun.

17. 의미상의 수동태

a. 중간태

자동사 중에는 형태는 능동구문이나 의미는 수동구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런 동사의 대부분은 타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수동구문으로 고쳐 쓸 수 있다. Jespersen에 의하면 이러한 동사를 가리켜 능·수동 동사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사가 사용된 수동구문을 중간태라고 한다(한덕수, 1985). 다음 예문에서처럼 (98 a), (99 a)는 능동구문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를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면 (98 b), (99 b)가 된다.

(98) a. This paper does not *tear* straight.

b. This paper *is* not *torn* straight.

(99) a. The bread doesn't *bake* well in this oven.

b. The bread *is* not *baked* well in this oven.

(98 a)는 종이가 곧게 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99 a) 빵이 오븐에서 잘 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사인 *well*을 동반하면서 주어가 수동적인 상태임을 강하게 표현한다.

중간태로 사용하는 동사로 *stand, play, begin, marry, sell, read, open, close, change, clean, peer, tend, show* 등이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수동구문으로 표현했을 때와 자동사로 썼을 때 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동작의 주체가 서

로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동구문에 있어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인 문장과는 의미면에서 실제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Poutsma는 말하고 있다(H. Poutsma, op.cit. 103).

다음 (100)의 예문에 제시된 여러 동사들은 자동사 역할을 하는 중간태 동사와 타동사 역할을 하는 수동태 기능을 둘 다 수행 할 수 있다.

(100) a. He *married*. = He *was married*.

b. His shirt *dried* in the sun. = His shirt *was dried* in the sun.

c. The room *filled* rapidly. = The room *was filled* rapidly.

d. He *stood* against the wall and was shot. = He *was stood* against the wall and was shot.

e. This wine *is selling* quickly. = This wine *is being sold* quickly.

하지만 중간태를 사용한 구문이 서로 대응하는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에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를 갖는데 (101 a)는 문이 저절로 닫힌 경우를 말하고, (101 b)는 문이 누군가에 의해 닫힌 경우를 말한다.

(101) a. The door *closed*.

b. The door *was closed*.

Celce-Murcia와 Freeman(1999)은 중간태의 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상태변화의 동사로 규정하고 중간태를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 그 쓰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다음 예문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겠다(김민경, 2011).

중간태 사용환경은 첫째로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위자는 관련성이 없거나 부수적일 때이다. 이는 (102)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문이 오전 9시에 열려있는 상태만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102) a. The store *opens* at 9 a.m.

둘째, 필자나 화자의 목적이 미스터리하거나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할 때인데 (103)의 예문에서처럼 문이 갑자기 열린 긴장된 분위기를 나타낸 경우이다.

(103) We were sitting quietly in front of the fire when suddenly the door *opened*.

셋째, 주어가 외부적인 요인과는 관계없이 깨지거나 녹거나 변화되는 불안정한 형태일 때로, (104)의 예문에서처럼 풍선이 갑자기 터져 모두를 불안하게 한 경우와 같다.

(104) The red balloon suddenly *burst* and scared all of us.

넷째, (105)에서와 같이 물리적·사회적·심리적 법칙이 작용하여 변화의 발생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이다.

(105) Mrs. Smith's opinion of Ronald Reagan *changed*.

다섯째, 상태변화의 원인 제공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행위자만으로 언급하는 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106)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106) Prices *increased*.

마지막으로 중간태 동사들은 주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같은 기술적인 표현과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간태에서는 주어의 속성을 쉽게 알 수 있다 (Jespersen, 1933).

- (107) a. This dress *washes* better than the blue one.
 b. His books *sell* very well.

(107)의 예문에서 (a)는 옷이 잘 세탁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고, (b)는 책이 잘 팔리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중간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은 수동태구문은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없는 반면, 중간태는 사건이 누구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행위자를 첨가하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즉 사건의 발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08) a. The window *was broken*.
 b. The window *was broken* by the gang.
 c. The window *broke*
 d. *The window *broke* by the gang.

(108 a)문장은 수동태로 표현했을 때 창문이 깨졌다는 의미가 있고 (108 b)에서처럼 by-행위자를 표시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인 건달들에 의해 창이 깨졌다는 문장으로 바뀐다. 하지만 (108 c)의 예문처럼 중간태로 표현되면 (108 a)의 문장처럼 창이 깨진다는 의미지만 (108 d)처럼 by-행위자를 표시하면 사건이 다각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났다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b. 경험수동태

권은미(2002)에 따르면 이 수동구문은 「have (make, get) + 목적어 + p.p.」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어와 p.p.는 주어와 술어관계를 지니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p.p.가 나타내는 행위를 직접 받는 것은 표면상의 목적어로서의 피해자의 의미를 지니며, 주어는 단지 그러한 행위를 경험하는 경험자의 의미를 지닌다. 이

러한 경험수동은 그 의미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주어의 사역적인 의미를 가진 경험을 나타내는 사역적 경험 수동구문이 있다.

- (109) a. I want to *get* my photography *taken*.
b. James *had* the house *painted*.
c. Susan *got* her nails *done*.
d. I *had* my bag *carried* by the porter.

위의 예문(109)은 주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사 *get*, *make* 자체에 역점이 주어지게 되며,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109 e)와 같이 「by + 행위자」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문장의 주어가 고의적으로 상황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닌 불운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주어의 이익보다 오직 피해를 당한 경험을 나타내는 피해적 경험 수동구문이 있다.

- (110) a. I *had* my wallet *stolen*.
b. She *got* her coat *soiled*.
c. She *had* his house *burnt* down in the fire.

위의 예문(110)은 과거분사가 수동의 힘을 갖게 되므로 말할 것도 없이 과거분사에 역점이 주어지게 된다. 이 구문들은 주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수동의 뜻이 되는 것으로 (110 a)의 예문을 목적어인 *my wallet*을 중심으로 보면 (111)의 예문과 같이 분석된다. (111 a)의 목적어인 *my wallet*을 주어로 한 수동구문을 보면 (111 b)의 문장이 된다.

- (111) a. A thief stole my wallet.
 b. My wallet *was stolen* by a thief.

따라서 위의 예문들은 주어가 손해를 당했다는 관점에서 의미상 수동구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have(get) + 목적어 + p.p.」의 수동구문에서 강세(stress)의 위치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Crum(1935:232)은 언급했다. 즉 *He has his work done.*에서 *has*에 강세(stress)가 오면 이 문장은 *He employs other people to do his work.*의 의미가 되며, *done*에 강세(stress)가 오면 *His work is done.*의 의미가 된다.

c. 내재 수동구문

내재 수동구문(concealed passives)은 수동구문의 의미를 가지는 *need*, *require*, *want*, *deserve* 등과 같은 동사들이 실제 수동구문은 아니지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 수동구문으로 본다. 이 때 동사는 현재분사형(present participle)을 가지고 오며 보통 *british English*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 (112) a. This essay *needs careful checking* by the editor.
 b. This essay *needs careful to be checked* by the editor.

- (113) a. My computer *needs repairing*.
 b. My computer *needs to be repaired*.

- (114) a. The culprit *deserves punishing*.
 b. The culprit *deserves to be punished*.

위 예문들 (112 a), (113 a), (114 a)의 *ing*형은 모두 「to + be + p.p.」로 전환되어 (112 b), (113 b), (114 b)와 의미가 같다.

18. 이중 수동구문

한덕수(1985)에 따르면, 이중 수동구문 한 문장 속에 두 개의 수동구문의 형태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이때의 수동구문은 다음과 같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사의 목적어로 *to-inf*(부정사)를 취하는 경우(115 a)와 또 하나는 「타동사 + 목적어 + to부정사」로 된 형태(115 b)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의 부정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15) a. It *was attempted to form* a new plan.
b. A new plan *was attempted to be formed*.

(115)의 예문을 살펴보면 동사의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경우인데 이미 수동구문인 (115 a)는 부정사의 목적어인 *new plan*을 주어로 하여 *form*을 수동화하면 한 문장에 두 개의 수동구문을 가지는 이중 수동구문인 (115 b)로 문장을 변형할 수 있다. 하지만 (115 a)는 *to form*이 시도되었고, (115 b)는 *new plan*이 시도된 것으로 의미의 초점이 다르다. 다음 (116)의 예문을 보자.

- (116) a. They allowed no building *to be erected*.
b. No building *was allowed to be erected*.

(116 a)는 능동구문이지만 보충어로 오는 부정사가 수동형태이다. 타동사 *allow*의 목적어인 *no building*이 수동구문의 주어가 되면서 (116 b) 또한 한 문장에 수동형을 두 개 취하고 있는 이중 수동구문이라 할 수 있다.

19. 부사 *there*에 유도되는 수동구문

이현주(2004)가 언급한 것에 따르면 수동구문에는 허사 없이 수동구문을 이루는 일반적 수동구문이 있고 유도부사 *there*에 의하여 유도되는 허사 수동구문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면 (117 a)는 일반적인 수동구문으로 *package*가 놓여졌다면 (117 b)는 허사 수동구문으로 놓여진 *package*가 있다고 상태를 나타낸다.

- (117) a. Several large package *were placed* on the table.
b. *There were* several large packages *placed* on the table.

허사 수동구문은 관련 명사구가 수동분사(passive participle)의 바로 앞에 위치하거나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There + be + p.p. + 주어」로 (118 a)의 예문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There + be + 주어 + p.p.」로 (118 b)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 (118) a. There were placed on the table *several large package*.
b. There were *several large package* placed on the table.
c. * There were placed *several large package* on the table.

(Radford 2000:3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미상 주어역할을 하는 관련 명사구의 위치인데 (118 c)와 같이 기저 생성된 수동분사의 오른쪽 자리에 관련 명사구가 위치할 경우는 비문법성을 초래하며, (118 a)와 같은 수동구문은 주어가 너무 길거나 비중이 커서 문장의 뒤로 돌릴 때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118 a)처럼 주어가 문장의 오른쪽 마지막 자리로 이동을 하거나 (118 b)처럼 수동분사의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다시 말해 영어의 허사 수동구문은 관련 명사구를 수동분사 앞이나 문장의 마지막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119) a. There *was* very little tea *eaten* that evening.

b. There *had been* gladly a word *spoken* between him and Lily.

또 (119)에서와 같이 「There + be + 주어 + p.p.」 구문에서는 각각 (a, b)에서 명사 주어와 동사(과거분사)가 한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역할을 하는 아주 긴밀히 연관된 어군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명사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자동사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I 장 서론에서는 수동구문의 유형에 대해 조사하게 된 목적을 제시하고, 수동구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전통문법부터 변형문법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II 장에서는 수동구문을 형용사적 수동구문과 동사적 수동구문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동사적 수동구문은 그에 대응하는 수동구문이 존재 한다는 것, 「by + 행위자(agent)」인 *by-phrase*가 존재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 능동문의 주어는 알 수 없다는 것, 능동 동사형이 과거 분사형으로 되는 수동문의 접사화가 되어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품사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형용사적 수동구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not*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점두사 *un-*을 취할 수 있고, 수동화된 과거분사는 명사를 수식하여 나타낼 수 있다. 과거분사는 강화사에 의해 수식받을 수 있고, 또한 수동구문에 대응하는 능동구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by-phrase*를 추가하는 것이 선택적이다.

III 장에서는 우선 표층구조와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동구문의 유형을 통사적으로 정리하였다. 수동구문은 「be + p.p. + by 행위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 하는데 수동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용된 동사가 *be*와 대치할 수 있는 동사와 *p.p.*가 결합하여 수동구문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 문어체인 「be + p.p.」 다음으로 비격식 구어체인 「get + p.p.」, 결과양상의 「become + p.p.」, 「grow + p.p.」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상태 수동에 초점을 맞춘 수동구문 유형 「stand + p.p.」, 「feel + p.p.」, 「remain + p.p.」, 「appear + p.p.」, 「lie + p.p.」, 「seem + p.p.」, 「look + p.p.」, 「sit + p.p.」, 「rest + p.p.」로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 본 수동구문은 동작과 상태에 초점을 맞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인 형태의 「be + p.p.」를 중점으로 다른 형태로 변형된 다양한 형태인 완료 수동구문, 진행형 수동구문, 조동사가 사용된 수동구문을 살펴보고, 명령문과 의문문의 수동구문, 간접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체가 되

는 간접수동구문, 전치사 좌초를 허용한 의사 수동구문을 정리하고, 행위자를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by* + 행위자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 이외의 전치사가 사용된 구문과 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능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는 의미상 수동구문, 한 문장에 두 개의 수동형태가 존재하는 이중 수동구문, 마지막으로 허사 *there*의 수동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V 장은 앞 장들을 요약하였다.

이처럼 한국어에는 수동태라는 구문이 없기 때문에 수동구문을 처음 접하는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수동구문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조차 입시영어라는 또 다른 역할의 영어교육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법에서의 정확한 수동구문을 이해시키고 활용하게 하는 것보다 수동구문의 기본적인 형식에 기준하여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하여 지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문법서 대부분이 능동구문에서 수동구문을 전환시키는 것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전환 될 수 없는 경우는 정확한 설명의 언급 없이 예외로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든 능동구문은 수동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들의 의미가 서로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은 수동태의 형태가 「*be* + p.p. + *by* + 행위자」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다른 형태의 수동구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수동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수동구문의 형태에만 수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체적으로 수동구문을 정확한 형태로 알고 있지도 않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예문을 접하고 여러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수동구문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본 논문에 분류하고 있는 유형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되는 빈도나 난이도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았고, 수동구문 자체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향후 수동구문의 보다 실용적인 용법에 대하여 이들 수동구문의 유형들 중 어떤 유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용이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양호. (2007). 「영어 수동태 구문의 통시적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은미. (2002). 「수동구문의 담화 기능적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태. (2000). 「영어 수동구문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경. (2011). 「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수동태 유형 분석」.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웅. (2009). “무핵범주의 비이동성 연구 : 영어 의사수동태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제25권 제3호 (2009년 11월) pp.447-467,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 문갑동. (1991). 「영어수동구문의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은옥. (2000). 「영어수동구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강정. (2002). “특수 수동구문의 화용적 적용.” 『인문과학연구논총』
vol.24 No.-, p.37~5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남근. (2009). “영어 의사수동(pseudo-passive)구문에서의 문법 상호작용;
구문 문법적 분석.” 『언어연구』, 제 26권 3호 p.21~42,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 이영주. (2006). 「수동태의 담화 · 기능적 접근을 통한 영어교과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정. (1996). 「수동구문의 통사적 분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 (2005). 「수동 허사구문과 비대격동사 허사구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정. (2009). 「영어 수동구문 연구 및 지도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덕수. (1986). 「영어 수동구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rume, G. O. (1931). *Syntax*. Boston: D.C. Heath & Co.

_____. (1935). *Parts of Speech and Accidence*. Boston: D.C. Heath & Co.

Jaeggli, O. (1986). "Passive." *Linguistic Inquiry* 17.4, 587-622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_____.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 Henry and Company.

_____. (1954).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Katz, J.J. and Postal, P.M. (1964).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IT Press.

Krusinga, E. (1931) *A handbook of present-Day English*, part II, Groningen: P. Noordhoff.

Leech, G. and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Onions, C.T. (1971). *Modern English Syntax*. London: Routledge and Kegan Faul.

Poutsma, H. (1914-1929).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art I-II vols. Groningen : Noordhoff.

Sweet, M. (1953). *A New English Grammar*, Part. I. Oxford : Clarendon Press.

Takami, Ken-ichi. (1992). *Preposition stranding: From syntactic to functional analyses*. Mouton de Gruyter: New York.

Wasow, T. (1977). Transformations and the Lexicon. *Formal Syntax*, Culicover, & Wasow eds., New york: Academic Press.

Zandvoort, R.W. (1957).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Green & co.

http://en.wikipedia.org/wiki/English_passive_voice

<http://www.grammarling.com/the-passive-with-get>